

하고 문화·학술·체육·종교 등 순수 사회문화 교류 중심으로 협력사업 추진과 접촉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교류와 관련하여 한국미술협회 여성위원회는 2009년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한전프라자 갤러리에서, 그리고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 KOREA 여성·오늘展」이라는 주제로 남북 여성화가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남북 여성화가들의 작품으로 공동전시회를 여는 것은 남북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본 행사에는 평양 만수대창작사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작가 18명의 작품을 포함하여 140여명의 남북 여성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학술교류와 관련하여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4년 사업승인 이후 2010년 6월말까지 총 20차례의 남북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였고, 집필이 본격화됨에 따라 2009년도에 남북공동집필회의를 4차례 개최하였다. 2010년 6월말 현재, 겨레말큰사전에 올릴 어휘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집필 작업중이며, 전체 계획 대비 55%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추진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사업」은 2010년에도 계속 추진되어 3.23~5.18까지 건덕전 지구 3,300㎡에 대한 발굴조



남북 KOREA 여성·오늘전(2009.11.2~11.4, 국회의원회관)

사를 완료하였다. 2010년 6월말 현재, 금년도 발굴조사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중국 곤명에서 전지훈련중인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단과 북한 유소년 축구 선수단의 친선경기를 개최(2009.7.17~8.4)하였다. 한편 2007년부터 진행되어 온 ‘남북 유소년축구팀 상호교환경기’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남북이 협의하였으나, 상호교환경기 성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2010 남아공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대표팀 경기가 2009년 4월 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종교분야 교류는 대규모 행사 위주에서 실무차원의 사업 협의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실무협의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향후 교류사업과 관련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서 추진되었다. 기독교계는 개성, 평양과 중국에서의 실무협의 위주로 교류를 진행하였다. (사)기쁜소식은 북한에 우리 성경을 보급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였고 새에덴교회는 평양 봉수교회 방문을 통해 봉수교회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불교계는 조계종이 2009년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신계사 낙성 2주년 기념 남



제18차 거래말근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 (2009.6.21~6.30, 심양)

북공동법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향후 중장기적 남북불교교류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부처님 오신날’에는 북한에 향과 초 등 예불물품을 지원하였다. 천태종도 11월 21일 개성 영통사에서 대각국사 의천 열반 다례법회를 북한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평양에서 만나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 반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 천주교는 북한 조선카톨릭교협회와 ‘사목권’(교황청의 천주교 관련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제반 권리)을 협의하였으나, 북한의 이해 부족 등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안중근기념사업회는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1월 3일 개성에서 북한 조선종교인협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1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북공동기념행사를 중국 여순에서 개최하였다. 그 밖에 천도교는 3.1절 및 광복절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동안 개천절 남북공동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왔던 단군민족평화통일협회는 2009년에도 남북 공동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하였지만 3.1절, 8.15, 개천절 등을 계기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도 6.15공동행사는 남북 공동으로 추진되지 않고 남북간 합의에 따라 각자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 남측위」)는 2009년 6월 14일 장충체육관에서 자체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8.15 공동행사 또한 남북간에 각자 개최하기로 하여 「6.15 남측위」는 2009년 8월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자체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노동·교육·문학·언론 분과 등 6.15 남측위 산하 부문별 교류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2010년도는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이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북한의 금강산 위협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상황 등으로 인해 남북·해외 공동행사로 추진되지 않고 각자 개최되었다. 「6.15 남측위」는 2010년 6월 13일 서울광장에서 야외행사를 가졌으며, 6월 15일에는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교류는 2009년도와 2010년도 모두 다른 분야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상황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으며, 자체 남북협력기금도 조성하여 남북교류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바, 2009년말 현재 15개 단체(광역 11, 기초 4)에서 813억원을 조성하였다. 한편, 2009년은 제주도가 1999년 1월 22일 감귤을 북한에 지원한 이래 지자체 대북교류사업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는 이화여대 산학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지자체 대북교류 10년』 책자를 발간·배포하였다. 또한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해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상반기, 2010년 상반기 등 매 반기별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4절 남북 출입통행 및 운송

### 1. 남북 출입사무소 출범 배경 및 역할

남북출입사무소는 2002년 이후 남북간에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자재·장비의 운반이 빈번해지고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화됨으로써 남북출입 업무를 지원·처리할 상시조직의 운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발족하였다. 2003년 2월부터는 임시 출입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 직제를 신설하여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간 출입통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북측을 방문하는 출입인원에 대한 심사·검역 등 통

행관리, 출입과 관련한 민원사무 처리(임시방북증 발급, 방북교육, 출입관련 긴급상황 처리 등), 반출입 물자의 통관 지원, 열차운행과 관련한 대북 연락 및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서지역 최북단이자 남북간 길목에서 통일부를 비롯하여 법무부·보건복지부·관세청 등 출입심사기관이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협업체제를 유지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특구 등 북한내 남북협력지구로의 출입통행 과정에서 관문(關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남북 출입통행 절차

남북간에는 출입통행의 특수성이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출입통행에 있어서도 동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왕래시 출입경 개념을 도입하여 출국 대신 출경으로, 입국 대신 입경으로, 사무소 명칭도 출입국사무소 대신 출입사무소로 명명하여 사용하고 있다.

남북왕래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도 외국으로 출국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는 여권을 소지하게 되어 있는데 반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북승인을 받고 여권 대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출입심사, 통관, 검역 등의 절차는 출입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우리 주민이 북한측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부에서 방북승인을 받아,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 방문시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OK(Online 출입신청시스템)에 방북시 필요한 증명서인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신청하고, 통행계획을 작성하여 출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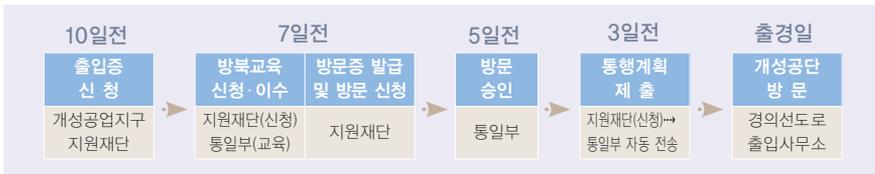
### 출입국·출입경 차이

구분	출입국	출입경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간의 왕래, 국제 거래</li> <li>• 비자발급, 여권소지</li> <li>• 출입국사무소 관할(법무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한 남북관계의 왕래, 민족 내부 거래 ※ 남북기본합의서 반영</li> <li>• 출입증, 체류증 발급, 북한방문 증명서 소지</li> <li>• 남북출입사무소 관할(동일부)</li> </ul>
공통점	• 보건검역, 출입심사, 통관절차	

그 이후 통일부가 운영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방북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북한방문증을 가지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심사를 받고 출경하며, 북한측 지역에서는 출입증(원본) 또는 체류증을 가지고 입경수속을 밟은 후에 방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북승인을 신청할 때 방북안내교육과 출입증이나 체류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차량을 이용하여 방북하려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후 통행계획 제출 전에 차량운행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자동차 운행 신청시 「전자운행증(RFID카드)」이 자동 발급되어 전자식 자동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출입경 차량에 「전자운행증(RFID카드)」을 부착하면 남북출입사무소 차량심사대에서 자동으로 처리(「통행차량증명서」, 「출발·도착보고서」 및 「출입확인서」 제출 생략)됨에 따라 신속·원활한 출입통행이 가능하다.

### 북한(개성공단)방문신청 개요도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일명 통통시스템) : <http://www.tongtong.go.kr>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온라인출입신청시스템 : <http://oks.kidmac.com>

### 3. 남북간 육로 출입시설 현황

#### 가. 출입시설 현황

남북출입사무소는 2003년 남북철도·도로를 연결한 이후 2006년에 경의선 철도·도로출입시설(도라산역 포함) 및 동해선 철도·도로출입시설(제진역 포함)을 준공하였고, 2007년 12월에 도라산물류센터를 준공한 바 있다.

또한 동해선 출입사무소는 2010년 9월 완공을 목표로 동해선 물류센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해선 물류센터는 앞으로 북측 동해안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철광석, 석탄, 텅스텐, 마그네슘 등)을 개발·반입하거나 동해에서 조업한 수산물의 반입 등 북측에서 생산된 물자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물류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이후, 출입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남북간 인원·차량·물자의 왕래에서 발생하는 출·입경 업무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출입시설 현황

구 분		건물 연면적	공사기간	부지면적/동수
경의선 (도라산)	철도출입시설	15,825m <sup>2</sup>	'04.9 ~ '06.4	442,015m <sup>2</sup> (36개동)
	도로출입시설	18,310m <sup>2</sup>	'04.9 ~ '06.5	
	도라산물류센터	19,488m <sup>2</sup>	'05.10 ~ '07.12	
동해선 (고성)	철도출입시설	6,705m <sup>2</sup>	'04.9 ~ '06.4	233,973m <sup>2</sup> (15개동)
	도로출입시설	14,055m <sup>2</sup>	'04.9 ~ '06.5	
	물류센터	12,041m <sup>2</sup>	'06.12 ~ '10.9(예정)	

## 경의선 출입시설 전경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도라산역)

## 동해선 출입시설 전경



도로출입시설



철도출입시설(제진역)

## 나. 육로를 통한 출입통행 현황

2009년도 출입통행은 2008년 7월 11일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으로 인한 관광 중단과 북한의 2008년 12월 1일 출입제한 조치(화물열차 운행중단, 개성관광 중단, 인원·차량 제한 등)로 인해 예년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의선 육로는 11만 5,026명의 인원과 7만 2,929대의 차량이 통행하였고, 동해선 육로의 경우 3,682명의 인원과 1,323대의 차량통행이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1일 이후 출입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경의선 출입인원 및 차량이 꾸준히 증가했다.

동해선은 2010년 4월 13일 북한의 금강산내 이산가족면회소·온천장 등 자산동결, 4월 23일 동결자산 몰수, 민간 소유부동산 등의 자산동결에 따른 관리인원 추방으로 5월 3일 현대아산 및 골프장의 최소관리인원 16명을 제외하고 모두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인원 근무교대, 식자재 운반 등을 위한 출입경만 1주일에 1회씩 이루어지고 있다.

경의선의 경우, 5월 24일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우리 정부의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중인 인원이 800~1,000여 명에서 400~500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출퇴근 인원 증가에 따라 2010년 6월말 현재 일일 출입경 인원은 400여 명 수준에서 500여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 동안 경의선·동해선 출입사무소를 통하여 북한측 지역을 출입한 인원 및 차량은 다음 표와 같다.

경의선 및 동해선 출경 인원·차량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30	총계
경의선 육로	인원(명)	3,643	24,164	66,772	84,100	144,971	263,258	115,026	64,444	766,378
	차량(대)	1,249	15,314	38,868	47,352	71,857	92,296	72,929	42,257	382,122
동해선 육로	인원(명)	39,395	296,924	335,713	266,541	384,911	223,972	3,682	1,457	1,552,595
	차량(대)	3,143	15,585	19,852	14,724	20,035	12,456	1,323	707	87,825

※ 2009년 출입제한 조치 이전(8.31 까지): 75,395명, 46,862대  
2009년 출입제한 조치 이후(9.1~12.31): 43,313명, 27,390대